

# 광양시 “AI·로봇·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산업 도약”

### 전남 동부권 산업대 전환 혁신 포럼서 미래 전략 논의 정인화 시장 “산업 대전환 추진 TF·실행 전략 구체화”

광양시가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청사 시민홀에서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광양시 미래전략TF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 산업 대전환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통합의 중심, 광양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앞두고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방향과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향만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전남 동부권이 통합특별시 산업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향후 하위 법령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의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포럼은 광양시와 한국생산성A(파운데이션(KGAF)) 간 인공지능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시작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KGAF는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미래 산업 전환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도 이어졌다.

송세경 카이스트 교수는 제조 현장에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전략을 소개하며, 대규모 제조 설비가 밀집한 광양 산업 현장이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량 로봇과 AI 기술을 활용하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생산 공정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석 가천대 화합물반도체센터장은 전남 동부권의 산업 기반과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가능성과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혁신벨트 구상 속에서 전남 동부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양은 전력, 소재, 수유, 물류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기계 등 기존 제조업 기반과의 연계



광양시는 최근 시청 시민홀에서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광양시 미래전략TF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 산업 대전환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과 특수가스 분야에서도 광양의 산업 인프라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유치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확장 부지로 기반으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비전을 밝히고,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해안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

로’ 필요성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관련 학과와 연구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기영 순천대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순환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다시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본부장은 광양·순천·여수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철강·석유화학 등 전남 동부권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AI 기반 산업 전환 방향과

이차전지·반도체·로봇 등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금의 산업 대전환은 에너지·AI·디지털 대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대전환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 고흥, 사회적경제기업·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

### 고흥상생일자리센터 조성 완료...“지역경제 선순환”

고흥군은 지역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고흥상생일자리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고흥상생일자리센터는 지역 고용 환경에 맞춘 종합적·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거점 공간이다. 군은 센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센터는 연면적 250.56㎡, 지상 2층 규모로 흥양길 23-43 일원에 조성됐다. 내부에는 일자리 상담실과 사무공간, 잡(JOB)카페, 회의실 등을 갖춘 구조와 구인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 마을공동체 컨설팅, 일자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고용



고흥상생일자리센터 전경.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상생일자리센터

는 고용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 밀착형 플랫폼이다”며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자립 기반을 제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일자리 통합플랫폼도 함께 구축 중이며, 오는 5월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일자리 정보는 물론 귀농귀촌 정책,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 순천-SK행복나래, ‘행복두끼 프로젝트’ 추진

###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 1년간 도시락 제공

순천시는 결식 우려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순천시가 지난해 12월 SK행복나래(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결식 우려에 놓인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협력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 40명으로, 올해 3월부터 1년간 주 2회 배달 업체에서 도시락 배달·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에 집중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결식 우려 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공 급식제도와 연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결식 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봄꽃과 함께 돌아온 로컬 플라마켓 ‘콩장’

### 21·28일·4월 11일 구례 서시천체육공원서 개최

구례군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플라마켓 ‘콩장’을 다시 개최한다.

‘콩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되며 구례를 대표하는 플라마켓으로 자리 잡았던 행사다. 판매자와 방문객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상반기 행사는 21일, 28일, 4월 11일 총 3회에 걸쳐 서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하반기 일정은 9월 이후 별도로 공지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서시천체육공원을 따라 50여팀이 참여하는 플라마켓이 운영된다. 서시천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는 방문객들이 콩장과 함께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간이 텐트와 돗자리, 양산 등 다양한 휴식 공간과 아이템도 제공한다.



구례매천도서관과 연계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외도서관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로컬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연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플라마켓 개최 역시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그동안 콩장을 그리워하던 주민들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플라마켓을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다시 시작하는 ‘콩장’이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곡성군

## 곡성,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 박차

###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입국...옥과·석곡농협에 배치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29명과 동행 인력 1명은 곡성군과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인력으로,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곡성으로 이동해 마약 검사와 감염질환 검사 등 건강 검진을 마쳤다.

환영 행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곡

성군, 군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농협에 배치돼 한국 생활 안내와 농작업 준수사항 교육, 근로계약 체결, 통장 개설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4월 중에는 옥과농협과 석곡농협에 배치될 계절근로자들이 추가로 입국해 곡성군 농업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ws1@gwangnam.co.kr

## 보성,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과 계약 체결

### 온라인 홍보 강화...제도 정착 민간 참여 확대

보성군은 최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보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창구를 다양화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기부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위기브’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서비스를 시작한 민간 플랫폼으로, 지난해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지원해 왔다. 특히, 전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515억원 가운데 약 235억원을 모금하며 제도 정착과 민간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브’가 보유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능, 유명인 협업 콘텐츠, 기부자 응대(CS) 시스템, 답례품 기획 및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며, 보성녹차, 벌교포막 등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투자하고, 답례품 제공업체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